

미술품(그림) 가격의 결정 요인 분석: 호당가격제가 성립하는가*

남 준 우**

논문초록 | 본 논문은 옥션에서 낙찰된 미술품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가격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미술품의 가격결정요인을 설명하고 또한 그동안 미술작품의 특성을 무시하고 작품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호당가격제가 아직도 우리 미술시장에 성립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또한 유명 작가들의 작가별 효과(프리미엄)를 추정하여 이러한 작가별 효과가 미술품의 다른 특성을 통제하기 이전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고, 작가들의 전시회 및 수상 등의 작품 활동이 작품가격에 총체적으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핵심 주제어: 호당가격제, 특성가격모형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Z1, Z0

투고 일자: 2008. 3. 6. 심사 및 수정 일자: 2008. 6. 10. 게재 확정 일자: 2008. 6. 18.

* 본 논문은 2008년 2월 19-20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2008 경제학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으로 학회의 발표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 주신 국민대 경제학과 소병희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특별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mail: Jnahm@sogang.ac.kr

I. 서 론

미술품은 문화와 경제, 즉 창작과 이익추구라는 성격을 가진 재화로 분류된다. 특히 경제학적으로 미술품이란 미적 효용을 주는 소비의 역할과 일정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미술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인데, 현실적으로 작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정한 기준이 없거나 믿고 신뢰할 만한 감정 평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미술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미술품의 가격결정은 대체로 작가와 화랑에 의해 주도되어 왔는데 이때 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작품의 크기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호당가격제라 할 수 있다. 호당 가격제는 작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작품의 크기에 의존하는 가격제를 지칭한다. 즉, 호당가격제란 작가별로 통용되는 호당 가격이 대체로 정해져 있으며 동일 작가에 대해 그림의 호수에 비례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그림 가격이 비싸지나 그 가격 상승폭은 크기가 커질수록 대체로 감소한다. 만일 어떤 작가의 그림 가격이 호당 10만원이라면 10호 크기의 그림 가격은 1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40호 미만에서는 통상 호당가격이 적용되지만 50호 이상이면(경우에 따라서는 20-30호 그림에서도) 그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호당 가격에 비해 20-30% 정도 낮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통례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화랑가에서는 호당가격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 지기 이전 일반 소비자의 미술품에 대한 안목 부족으로 작품성을 평가하기 힘들어, 주로 화랑과 작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던 시절 작품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작품의 크기에 비례하여 미술품의 가격을 결정해 왔던 것이다. 최근에는 미술품 거래가 활발해 지고 소비자의 미술품에 대한 안목이 제고됨에 따라 작품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긴 하나 아직도 인기작가를 제외¹⁾ 하고는 호당가격제가 널리 통용된다고 할 수 있다.

캔버스의 규격을 지칭하는 호(號)라는 단위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들에 의해 도입

1) 인기 작가들의 작품은 호당 가격제와 크게 관계가 없다. 예컨대 45억 2000만원으로 2007년 말 현재 국내 근·현대 미술작품 경매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박수근의 ‘빨래터’나 30억 5000원에 낙찰된 김환기의 ‘꽃과 향아리’는 가격이 천문학적이다 보니 호당가격제로 값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 국제적 관례로 자리잡은 일종의 그림 ‘도량형’²⁾이다. ‘호’란 인물화, 풍경화 및 해경(海景)화 등에 따라 그 치수가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인물화 1호는 엽서 두 배 정도(22.7×15.8cm)의 크기다. 2호는 25.8×17.9cm이며 10호는 53.0×45.5cm로 1호에 비해 3배 크다. 그림의 가격이 어느 정도 작품의 크기와 비례함에 따라 ‘호당 가격’이라는 말이 성립하게 되었다. ‘호’란 엄밀하게 말하면 서양화에만 적용됐던 그림 수치이며 한국화는 전지, 반지 등 전통적인 계산 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한국화에도 호당가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르의 구분 없이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호당 가격은 일본, 중국은 물론 과거 뉴욕, 런던 등 해외 시장에서도 통용되어 왔으며, 미술시장에서 작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 기준으로의 순기능을 갖기도 한다.

최근 그림시장이 활황세를 맞으면서 회화 작품의 경우 작품의 크기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호당가격제의 폐단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작품성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작품의 크기에 따라 호당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들어 선진국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그림시장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미술품의 가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모형으로 특성가격모형(hedonic pricing model)이 있다. 특성가격 모형이란 특정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의 품질 및 특성을 통제하여 가격을 설명하는 회귀분석방법으로 Court(1930)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자동차, 부동산, 컴퓨터, 전자제품 등 여러 부문의 가격지수 계산에 사용되어 왔다. 미술품 가격 결정모형에서 특성가격 모형이란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가의 명성, 크기, 재질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미술품의 가격을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성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미술품의 여러 특성으로부터 미술품의 가격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논문은 많지 않다. Buelens and Ginsburgh(1993)는 특성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가격을 분석하였으며, Agnello and Pierce(1996)는 1971년-1992년 기간 동안 거래된 미국의 미술품을 중심으로 특성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미술품의 가격변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Renneboog and Van Houtte(2002)는 특성가격모형을 이용하여 1970-97년 사이에

2) 매일 경제 신문 홈페이지 참조.

발생한 10,500 건의 벨기에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전세계 경매 자료를 토대로 그림 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Worthington and Higgs (2006) 은 1973년-2003년 기간 동안의 호주의 미술품 거래 자료로부터 미술품의 가격변동을 설명하였다. 국내에서는 서울옥션의 경매에서 가장 활발히 판매된 작가 14명의 작품에 대해 소재별, 바탕 재질별, 연도별 작품가격을 분석한 최윤석(2006)을 들 수 있으나 제한된 분류에 의해 작품 가격을 분석하였으며 작가의 특성 및 작품 크기의 영향을 배제한 제한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가격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미술품의 가격결정요인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1998년 12월-2001년 12월 기간 동안 (주)서울옥션에서 낙찰된 미술품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미술품 가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전술한 미국,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 등의 외국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 3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호당가격제가 최근 우리나라 미술품시장에서 성립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로부터 유명 작가들의 작가별 효과(프리미엄)를 추정하며, 작가들의 전시회 및 수상 등의 작품 활동이 작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며 이로부터 미술품 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한다. 제 3절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 및 통계치에 대해 살펴본다. 제 4절에서는 이로부터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제 5절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한다.

II. 미술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림 가격과 크기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그림의 크기 이외에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크게 작가의 특성, 작품의 특성 및 작품 판매에 대한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측정가능한 작가의 특성으로 작가의 생존여부와 나이를 들 수 있다. 작가의 생존여부가 중요한 이유로는 대체로 사망한 작가의 경우 미술품의 공급이 제한되어 더 이상의 작품이 생산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가격 결정에 작가의 사망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작품 매매 당시 시점에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1의 값을, 생존한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가변수(DIE)를 도입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작품 매매 당시 작가의 나이 또한 미술품의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가의 나이가 고령에 접어들면 작품활동이 대체로 저조하거나 혹은 건강이 취약하여 작품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Agnello and Pierce(1996)).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작가의 나이는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Worthington and Higgs(2006)에 의하면 대체로 작가의 나이 초반에 완성된 작품의 경우 작가의 화풍이 확실하게 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작가의 나이는 작품 가격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이러한 바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작가의 나이를 설명변수로 고려하는데 작품이 완성된 연도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여 작품 활동 당시 작가의 나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 매매 당시의 나이를 고려하여 공급 측면에서의 나이의 효과를 고려한다. 사망한 작가에 대해서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다음의 식 (1)과 같은 연령-스플라인(AGESPLINE) 변수를 생성한다. 또한 미술품 가격에 대한 나이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연령-스플라인 변수의 제곱(SQ(AGESPLINE)) 혹은 삼제곱(CU(AGESPLINE)) 항을 포함한다. 여기서 $1(A)$ 는 A 가 참이면 1의 값을 부여하고, 오프이면 0의 값을 부여하는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를 나타낸다.

$$AGESPLINE_i = 1(DIE_i = 0) \cdot AGE_i \quad (1)$$

작가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 고려하는 마지막 변수로는 작가의 왕성한 미술 활동 혹은 작품활동에 대한 열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로는 첫째로, 작가의 전시회수를 고려할 수 있는데 본 자료에서는 국내 전시회수(DOMEX)와 해외 전시회수(FOREX)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며, 또한 작가가 여러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한 국내 수상회수(DOMPRIZE)와 국제대회 수상회수(FORPRIZE)를 설명변수로 포함하는데 본 논문 4장의 (2)절에서는 작가의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작가의 미술 활동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미술품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특성변수로는 작품자체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작품 자체의 특성변수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화와 서양화의 장르의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옥션 및 화랑업계의 두드러진 거래 특징 중의 하나는 동양화 혹은 한국화³⁾ 시장의 침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는 미술시장의 과열

과 더불어 미술시장에 뛰어들어 초보 투자자들이 작품에 대한 안목없이 환금성을 위주로 미술품을 수집하기 때문에 서양화를 위주로 구입할 뿐만 아니라 구입한 작품을 거실 등에 비치하기에는 한국화가 아파트, 빌라 등의 현대식 건물에는 어울리지 않아 한국화의 구입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지적⁴⁾이 있다. 이러한 바를 고려하여 장르를 구분하여 미술품의 가격 결정에 대해 설명한다.

장르 이외에 작품의 특성에 대한 변수로는 작품의 도구(media)를 고려할 수 있는데 서양화는 유화(OIL), 아크릴화(ACRYLIC), 수채화(WATERCOLOR) 및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한국화는 수묵담채(E_COLOR1), 수묵채색(E_COLOR2)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작품의 특성에서 바탕 재료(material) 또한 미술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하여 전체 미술품을 캔버스(CANVAS), 종이(PAPER) 및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국화의 경우 비단이나 천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으나 소수의 관찰치에 해당되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상을 고려하여 특성가격함수 모형에 근거한 그림 가격 결정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 = W_i\beta_1 + f(S_i) + \epsilon_i \quad (2)$$

여기서 y_i 는 자연로그로 치환한 $\ln(\text{그림가격})$ 을 나타내며, W_i 는 앞에서 설명한 AGESPLINE, SQ(AGESPLINE), DIE, WORK, SQ(WORK) 등의 작가와 관계된 변수와 CANVAS, PAPER 등의 그림의 바탕재질(material)에 관계된 변수를 나타내며, 그림의 도구를 나타내는 변수로 서양화의 경우에는 OIL, ACRYLIC, WATERCOLOR 등의 변수를 포함하며, 한국화의 경우에는 수묵담채를 나타내는 E_COLOR1, 수묵채색을 나타내는 E_COLOR2의 변수를 포함한다. 또한 S_i 는 그림의 크기를 나타내며, ϵ_i 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여기서 $f(S_i)$ 는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크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그림의 크기에 대한 다항식을 나타낸

3) 과거에는 회화의 장르로 서양화와 동양화로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 일본과의 작품 스타일의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에서의 동양화는 한국화로 지칭한다.

4) 한국경제신문, “오치균 그림 한 점 값이면 변관식 두 점 구입”, 2007년 11월 26일.

다, 예를 들어 이차항의 경우 $\alpha_0 + a_1S_i + \alpha_2S_i^2$ 을 들 수 있으며, 삼차항의 경우 $\alpha_0 + a_1S_i + \alpha_2S_i^2 + \alpha_3S_i^3$ 을 들 수 있다.

식 (2)의 모형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화랑가에서 통용되는 ‘호당가격제’는 각 작가별로 일정한 금액의 호당가격이 있으며 이 호당가격은 ‘호’의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거나 혹은 ‘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호당가격이 조금씩 감소하는, 즉 $f(S_i)$ 가 선형이거나 혹은 (약) 오목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작가의 유명도에 따라 호당 가격은 다르지만 그림의 가격은 각 작가별로 통용되는 호당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f(S_i)$ 가 선형이거나 혹은 (약) 오목한 형태를 가지는 단조증가함수의 형태라면 식 (2)의 모형은 그림가격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작품의 크기와 가격간의 관계, 즉 호당가격제의 성립 여부를 설명한다.

이상의 식 (2)로 표현된 모형에서 그림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이름이다. 이는 작가의 명성, 화풍, 스타일 및 그림 제작에 관계된 모든 것을 지칭하여 표현한 것으로 흔히 작가의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따라서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화풍, 동일한 크기의 그림이라 하더라도 작가에 따라 그림 가격이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체 관찰치 중에서 작품이 2편 이상 매매된 작가의 작품에만 1의 값을 부여하는 가변수를 Z_i 로 나타낼 경우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며 여기서 β_2 는 작가의 효과 즉, 고정효과를 나타낸다.

$$y_i = W_i\beta_1 + Z_i\beta_2 + f(S_i) + \epsilon_i \quad (3)$$

따라서 본 논문에서 추정하는 기본 모형은 작가의 효과가 추가된 식 (3)으로 패널 데이터 모형의 dummy variable model을 이용하여 고정효과(fixed effect)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자료에서 서양화 부문에서 작품이 2편이상 매매된 작가는 43명이며 명단은 <표 1>에 나열되어 있다.

III. 자료 및 통계치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 기간 동안 (주)서울옥션에

서 거래된 미술품 중에서 서양화 및 한국화의 회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찰된 작품을 제외한 작품 중에서 화가 및 미술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갖추어진 217개 미술품 거래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주)서울옥션은 1998년 우리 나라 최초로 설립된 미술품 경매회사로 미술품 전시장과 전문 경매장을 갖춘 서울옥션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경매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는 2005년에 설립된 K-옥션 등 다수의 경매회사가 있다. 경매를 통한 미술품 거래는 그동안 화랑을 통하거나 개인간에 행해지던 미술품 거래에서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미술품이 낙찰되는 공개된 가격 경쟁에 의해 작품이 유통되는 미술품 거래 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 기간 동안 옥션회사로는 (주)서울옥션이 유일한 회사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 미술품 거래 중에서 대체로 가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모든 미술품 거래를 포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표본기간 동안의 자료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화가로는 박수근 화가의 ‘집 골목’이 1억 9,800만원에 판매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김환기 화가의 ‘산월’이 1억 6,000만원에 판매되었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이상범 화가의 ‘사계 산수’가 1억 2,000만원에 판매되었다.

다음의 <표 1>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에서 작품이 1개만 매매된 작가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작품이 매매된 작가별로 매매된 작품 수와 작가의 출생, 사망연도⁵⁾ 및 매매된 작품 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평균 작품가격이 높은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격을 기록한 화가로는 김환기 화가를 들 수 있는데 김환기 화가의 ‘점’과 ‘산월’ 두 작품의 평균 매매가격은 9,700만원이며, 다음으로 박고석 화가의 ‘산’과 ‘풍경’ 등의 작품의 평균 매매가격이 5,10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화 부문에서는 이상범 화가 작품의 평균 매매가격이 6,08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표 1>에서 2점 이상 판매된 일부 작가들은 작품 가격 평균이 십만원 단위에 그치고 있어 작가에 따라 매매되는 그림 가격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1>에서는 서양화와 한국화 부문에서 공히 평균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5위에는 모두 사망한 작가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작가의 사망연도는 매매연도 당시 사망한 작가에 대해서만 표시하였다.

〈표 1〉 작가별 작품 가격에 대한 정보

(작품가격 단위: 만원)

변수명	작품수	출생연도	사망연도	평균가격	표준편차
전체	217			1,299.0	2,384.0
서양화	179			1,373.8	2,457.6
김환기	A12	2	1913	9,700.0	8,909.5
박고석	A16	5	1917	5,100.0	3,427.8
유영국	A32	2	1916	5,080.0	6,957.9
박수근	A21	6	1914	4,816.7	7,509.5
장욱진	A46	3	1918	4,333.3	3,257.8
오지호	A30	6	1905	3,983.3	2,912.3
권옥연	A2	8	1923	2,661.3	1,757.8
김홍수	A13	2	1919	2,400.0	565.7
김창열	A10	2	1929	2,200.0	0.0
김형근	A11	5	1930	1,850.0	1,082.8
이우환	A39	6	1936	1,825.0	1,232.8
천경자	A48	3	1924	1,516.7	752.2
임직순	A43	2	1921	1,450.0	777.8
장리석	A44	2	1916	1,355.0	1,619.3
이대원	A34	6	1921	1,110.0	195.4
유병엽	A31	2	1939	875.0	1,025.3
황용엽	A53	5	1931	796.0	966.3
김종학	A9	4	1937	782.5	453.8
김원숙	A5	2	1953	775.0	35.4
김점선	A7	2	1946	735.0	388.9
홍종명	A52	3	1922	653.3	777.8
최영립	A50	8	1916	620.0	483.9
고영훈	A1	2	1952	605.0	346.5
변중하	A26	2	1926	600.0	0.0
박서보	A20	2	1931	525.0	106.1
박득순	A18	2	1910	520.0	282.8
하인두	A51	4	1930	490.0	223.0
윤중식	A33	3	1913	466.7	57.7
유헌섭	A24	2	1923	410.0	14.1
이두식	A36	3	1947	406.7	375.4
김영주	A4	2	1920	385.0	162.6
박영선	A22	4	1910	357.5	15.0
전혁립	A47	5	1916	334.0	185.1
남 관	A14	2	1911	330.0	99.0
이알중	A38	2	1945	305.0	148.5
오수환	A29	2	1946	235.0	261.6
최쌍중	A49	2	1944	225.0	120.2
김중하	A8	2	1918	205.0	7.1
김일해	A6	2	1954	195.0	63.6
이항성	A42	2	1919	150.0	0.0
박항륜	A23	2	1950	125.0	35.4
이존수	A41	2	1944	60.0	56.6
이동기	A35	2	1967	20.0	0.0
한국화		38		946.6	1,992.5
이상범	A37	2	1897	6,080.0	8,372.1
박생광	A19	2	1904	1,555.0	1,619.3
장우성	A45	3	1912	1,233.3	1,365.0
김기창	A3	5	1913	1,226.0	1,125.4
이응로	A40	6	1904	900.0	533.7
장욱진	A46	2	1918	405.0	445.5
박노수	A17	2	1927	335.0	7.1
변관식	A25	2	1899	215.0	205.1
서세옥	A27	4	1929	177.5	91.8
안중식	A28	2	1861	150.0	0.0

다음의 <표 2>는 미술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여러 분류에 따라 그림 가격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관찰치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에서 전체 자료의 평균 가격은 1,299만원이다. 서양화의 평균가격은 1,370만원으로 한국화의 평균가격인 950만원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작가의 생존여부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사망한 작가의 평균 작품가격이 1,954만원임에 비해 생존한 작가 작품의 평균가격은 885만원으로 작가의 생존 여부에 따라 그림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2> 가변수명과 통계치

(작품가격 단위: 만원)				
특성	변수명	비율(%)	평균가격	표준편차
생존여부				
사망	DIE=1	38.7	1,954.6	3,399.0
생존	DIE=0	61.3	884.9	1,260.9
장르별				
서양화		82.5	1,373.8	2,457.6
한국화		17.5	946.6	1,992.5
서양화 도구별				
유화	OIL	74.9	1,398.7	2,550.4
아크릴	ACRYLIC	5.6	1,303.0	3,068.4
수채화, 과슈	WATERCOLOR	6.7	2,358.3	4,499.4
기타 서양화 재료		12.8	746.1	740.3
한국화 도구별				
수묵담채	E_COLOR1	18.4	1,982.9	4,422.3
수묵채색	E_COLOR2	50.0	667.4	835.6
기타 한국화 재료		31.6	784.2	834.7
바탕 재료별				
캔버스	CANVAS	66.4	1,278.2	2,123.3
종이	PAPER	28.6	1,440.5	3,063.4
기타		5.0	774.5	789.1

미술품의 도구별 평균가격으로는 서양화에 있어서 유화나 아크릴화의 평균가격 (1,400만원, 1,300만원)에 비해 수채화 및 과슈화(gouache)가 2,358만원으로 비싼 가격으로 매매됨을 알 수 있으며, 펜, 연필 등의 드로잉화의 평균가격(746만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국화의 경우에는 수묵담채화의 평균가격(1,983만원)은 수묵채색화의 평균가격(667만원) 및 기타재료(784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작품의 바탕 재료별 평균가격으로는 캔버스(평균가격 1,278만원)와 종이(1,441만원)가 천, 비단 등의 기타 소재를 사용한 그림의 평균가격(775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음의 <표 3>은 위에서 살펴본 그림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변수를 제외한 작가의 나이, 그림의 크기, 국내의 전시회수 및 국내외 수상회수 등 연속변수를 중심으로 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연속변수에 대한 통계치

	변수명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나이(세)	AGE	69.5	72	12.9	33	90
서양화		68.0	69	12.8	33	90
한국화		76.5	77	11.2	40	89
크기(호수)	SIZE	17.4	10	22.9	1	120
서양화		17.7	10	23.9	1	120
한국화		15.9	10	17.6	3	80
국내전시회수(회)	DOMEX	35.4	31	25.8	0	151
서양화		35.0	31	27.3	0	151
한국화		37.1	31	17.0	6	64
국외전시회수(회)	FOREX	24.2	16	23.9	0	99
서양화		25.1	16	24.6	0	99
한국화		20.1	9	20.4	0	55
국내수상회수(회)	DOMPRIZE	2.5	2.0	2.1	0	8
서양화		2.2	2	1.9	0	8
한국화		3.6	3	2.2	0	8
국외수상회수(회)	FORPRIZE	0.4	0	0.9	0	5
서양화		0.3	0	0.7	0	5
한국화		0.8	0	1.6	0	4

표본 자료에서 전체 작가의 평균 나이는 69.5세이며 서양화의 경우 평균 나이는 68세로 한국화의 평균 나이 76.5세에 비해 다소 젊은 편이다.

작품의 크기(SIZE)의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의 크기가 17.4호 임에 비해 중위수는 10호로 평균의 값이 중위수보다 다소 큰 값을 가지는데 이로부터 작품의 크기가 아주 큰 관찰치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체 그림 크기의 분포가 큰 쪽으로 넓게 분포하는(skewed to the right) 모양을 이룸을 알 수 있다. 동·서양화 공히 중위수가 10호 임에 비해 서양화의 평균 크기는 17.7호이며 한국화는 이보다 작은 15.9호 인 것으로 보아 서양화의 경우 크기의 분포가 한국화에 비해 더 비대칭인 모양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화의 가장 작은 ‘호’수의 그림은 권옥연 화가의 ‘소녀상’, 이준수 화가의 ‘무제’, 전혁림 화가의 ‘무제’ 및 최쌍중 화가의 ‘소’로 1호의 크기로 분류되며, 가장 큰 그림으로는 김창열 화가의 ‘물방울’, 이두식 화가의 ‘낙원에서 꽃밭에서’로 120호의 크기이다. 한국화의 경우 가장 작은 그림은 김종학 화가의 ‘여인’과 민경갑 화가의 ‘산’으로 3호의 크기이며, 가장 큰 그림은 장우성 화가의 80호 크기의 ‘염소’이다. 이로부터도 한국화는 서양화에 비해 크기에 있어서 고른 분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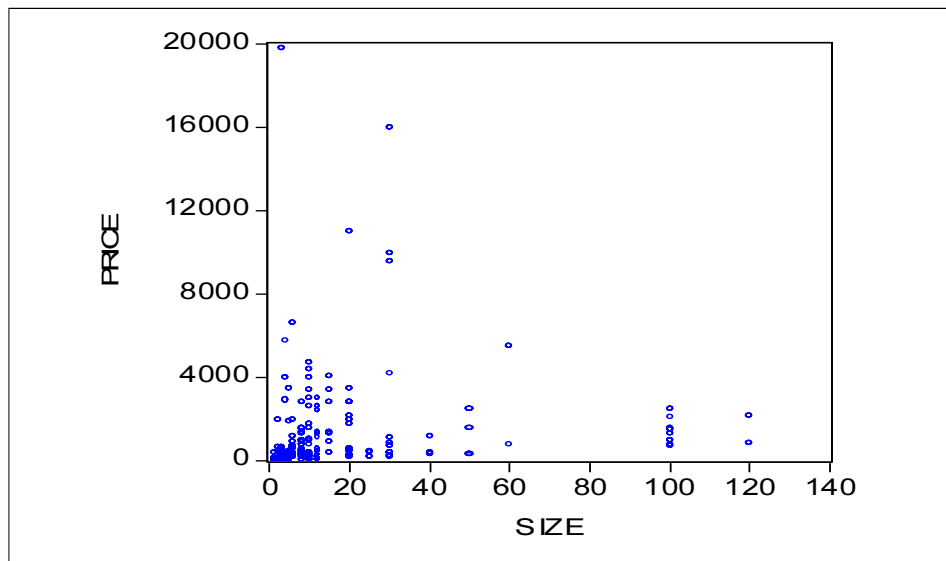
작가의 미술 활동을 반영하는 국내외 전시회수에 있어서는 국내 전시회수의 경우 한국화가 평균 37.1회로 서양화의 35회에 비해 소폭 많았으며 국외전시의 경우에는 서양화 평균이 25.1회로 한국화 20.1회에 비해 많았다. 가장 많은 전시 회수를 기록한 화가로는 국내 전시의 경우 서양화 부문에서는 안병석 화가가 151회의 전시를 기록하였으며 한국화의 경우 김기창 화가가 64회로 최다 기록하였다. 국외전시의 경우 서양화 부문에서는 김창열 화가가 99회, 한국화 부문에서는 이응로 화가가 55회 기록하였다.

또한 수상회수에 있어서는 국내수상에 있어서 서양화가의 평균 수상회수가 2.2회로 한국화의 평균 수상회수 3.6회에 비해 작았으나, 국외수상회수에 있어서는 서양화 평균은 0.3회이나 한국화 평균이 0.8회로 한국화가 소폭 많았다. 최다 수상화 가로는 국내수상회수에 있어서 서양화의 경우 김인승, 손장섭 화가가 8회 기록하였으며 한국화의 경우에는 박생광 화가가 8회로 최다 기록하였다. 국외 수상의 경우 서양화 부문에서는 노은님 화가가 5회 수상하였으며 한국화의 경우 이응로 화가가 4회 수상하였다.

이상의 통계치로부터 호당 가격제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그림 가격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 비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림 가격과 그림의 크기간의 관계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그림 1>은 점상관도(scatter diagram)를 통하여 그

림의 크기와 그림 가격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림 1〉 그림의 크기(호수)와 그림 가격간의 점상관도(서양화)



전체 자료의 상당수가 40호 이하의 크기이며 판매가격이 4,000만원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100호 혹은 120호의 크기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4,000만원 이하에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일부 40호 이하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그림이 1억 6,0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보충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앞에서 살펴본 다른 요인, 예컨대 화가의 명성도 및 화가의 특성, 그림의 특성 등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모든 변수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경우,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그림의 크기와 그림 가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IV. 실증분석 결과

다음의 〈표 4〉는 그림 가격을 화가 및 작품의 여러 특성에 대하여 식 (3)의 추정결과 중에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작가효과 부분을 제외한 기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식 (3)의 추정결과에서 작가의 효과는 〈표 5〉에 따로 그 결과를 수록하여 설

명하고 있다. 패널 (1)은 기본 모형을 추정한 결과로 그림 가격에 대한 그림 크기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호’로 측정한 그림의 크기 변수에 대해 자연 로그(ln)를 취한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로그를 취한 그림 크기의 일차항, 제곱항, 삼제곱항 등의 다항식 항에 대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조정된 결정계수(\bar{R}^2) 값이 가장 큰 삼차항수를 최종 결과로 선정하였다.

〈표 4〉 회귀분석 추정 결과

	서양화		한국화
	(1)	(2)	(3)
상수항	-7.824** (3.046)	-7.967** (3.141)	-3.157 (5.768)
AGESPLINE	0.264** (0.094)	0.261** (0.098)	0.096 (0.168)
SQ (AGESPLINE)	-0.002** (0.7×10 ⁻³)	-0.002** (0.8×10 ⁻³)	-0.001 (0.001)
DIE	1.360** (0.455)	1.268** (0.479)	0.659 (0.697)
OIL	0.571** (0.250)	0.615** (0.260)	
ACRYLIC	0.780* (0.424)	0.858* (0.438)	
WATERCOLOR	-0.120 (0.276)	-0.049 (0.288)	
E-COLOR1			0.155 (0.499)
E-COLOR2			-0.273 (0.393)
CANVAS	0.184 (0.279)	0.133 (0.290)	
PAPER	0.236 (0.324)	0.178 (0.335)	0.509 (0.560)
LOG (SIZE)			0.892** (0.219)
SQ (LOG (SIZE))	0.355** (0.063)	0.356** (0.064)	
CU (LOG (SIZE))	-0.050** (0.013)	-0.051** (0.014)	
DOMEX	-	0.001 (0.004)	
FOREX	-	0.003 (0.006)	
DOMPRIZE	-	0.016 (0.049)	
FORPRIZE	-	0.101 (0.141)	
R^2	0.831	0.832	0.478
\bar{R}^2	0.759	0.753	0.357

주: 1)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나타냄.

〈표 4〉의 패널 (1)의 결과에서 작품의 바탕 재료를 반영하는 일부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호도 예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화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⁶⁾ 그림 가격은 비선형적으로 상승하는 관계를 가지는데 이는 예측한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화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화풍이 확립되어 고객의 선호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건강 등의 이유로 작품 공급이 제한되거나 회소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비선형성을 가지는 구조로부터 보건대 화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림 가격이 증가하나 그 증가폭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가의 나이에 대한 그림 가격의 비선형성의 구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가격은 작가의 연령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작가의 연령이 고령이 될수록 그림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미국의 경우에 대해 추정한 Agnello and Pierce (1996)에서는 그림 가격은 작가의 나이가 38세일 때 최대가 된다는 사실⁷⁾이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사망한 화가의 작품이 생존화가의 작품보다 더 고가에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망한 화가의 경우 더 이상의 작품 공급이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작품의 도구 및 바탕 재료의 그림 가격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우선 작품의 도구는 대체로 그림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조건하에서 아크릴화, 유화 순으로 가격이 높았으며 수채화와 드로잉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탕 재료면에서 살펴본 캔버스나 종이 등은 그림 가격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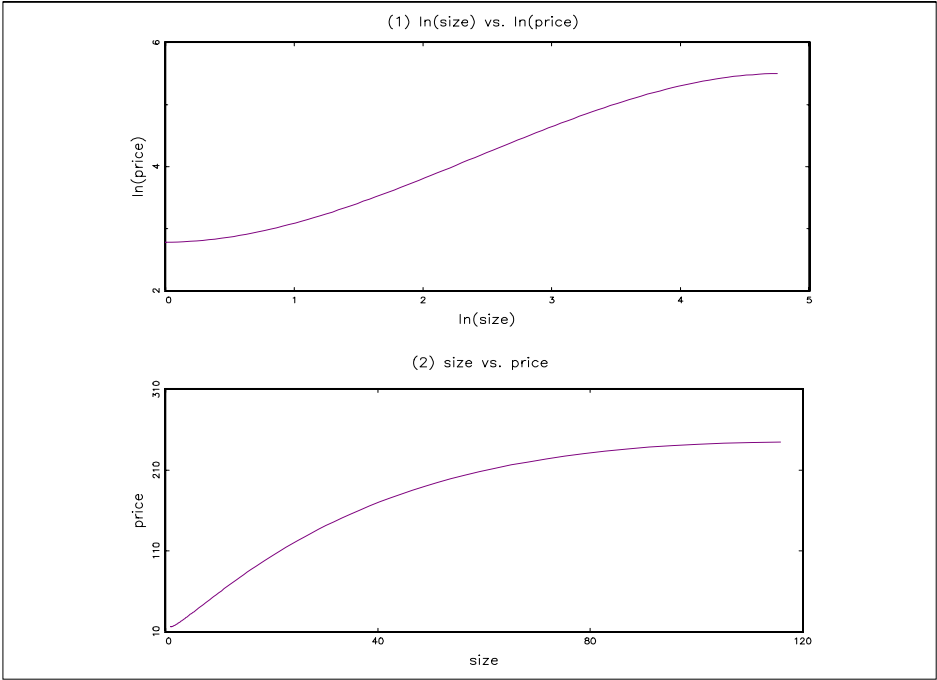
〈표 4〉의 패널 (1)에서 그림의 크기는 그림 가격에 아주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의 크기와 가격간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는 〈표 4〉의 추정 결과에서 그림의 크기와 그림 가격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의 패널 (1)에서는 〈표 4〉에서 구한 로그(그림 가격)을 로그(SIZE)에 대하여 3차 함수를 도식한 것이다. 패널 (1)에서 로그(SIZE)가 증가함에 따라 로그(그림 가격)은 선형에 가까운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대체로 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그림 가격이 고가임을 보여주고 있

6) 여기서 연령 spline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식 (1)에서 생존화가의 연령에 대한 그림 크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7) 추정 결과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 가격이 최대가 되는 작가의 나이는 103세로 나타났다.

다. 패널 (2)에서는 패널 (1)의 결과를 로그가 아닌 실제 그림 가격으로 환산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의 패널 (2)에서는 그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가격 또한 증가하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양화의 가격결정에서는 대체로 호당가격제가 성립하고 있으며, 그림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호당 가격은 할인되는, 즉, 호당가격이 그림의 크기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그림의 크기(호수)에 대한 그림 가격의 함수 형태(서양화)



1. 작가의 효과

다음의 <표 5>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식 (3)의 결과 중에서 작가 효과 부분을 따로 수록한 것이다. <표 5>의 결과에서 작품이 2개 이상 매매된 서양화가 43명의 작가 중에서 5% 유의수준에서 작가의 효과가 0과 다르다고 나타난 작가는 총 17명이다. 그중에서 작가의 효과 혹은 작가의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작가로는 김홍수 화가이며 다음으로 천경자 화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장옥진, 박수

〈표 5〉 작가 효과의 추정

변수	계수값	변수	계수값	변수	계수값
A1	0.851 (0.626)	A20	0.446 (0.499)	A39	1.305** (0.317)
A2	1.701** (0.293)	A21	2.120** (0.414)	A41	-0.983** (0.487)
A4	-1.360** (0.511)	A22	-0.857* (0.393)	A42	-1.116* (0.565)
A5	0.408 (0.570)	A23	0.034 (0.494)	A43	0.313 (0.508)
A6	0.068 (0.500)	A24	-0.308 (0.507)	A44	0.771 (0.534)
A7	0.275 (0.493)	A26	0.262 (0.526)	A46	2.134** (0.462)
A8	0.492 (0.505)	A29	-0.477 (0.478)	A47	0.376 (0.388)
A9	0.452 (0.369)	A30	1.180** (0.348)	A48	2.634** (0.455)
A10	0.906* (0.514)	A31	0.371 (0.484)	A49	0.619 (0.489)
A11	1.258** (0.345)	A32	1.281** (0.591)	A50	0.315 (0.395)
A12	2.095** (0.528)	A33	1.238** (0.483)	A51	-0.074 (0.395)
A13	2.640** (0.557)	A34	1.139*** (0.337)	A52	0.067 (0.417)
A14	-0.208 (0.527)	A35	0.314 (0.872)	A53	0.150 (0.340)
A16	1.616** (0.366)	A36	-0.250 (0.466)		
A18	0.140 (0.511)	A38	-0.035 (0.534)		

주: 1) *은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은 5%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

2)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를 나타냄.

근, 김환기, 권옥연, 박고석, 이우환, 유영국, 김형근, 윤중식, 오지호, 이대원, 김창열 화가 순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작가의 효과는 5% 유의수준에서 유의

8) 작가별 효과에서 유의할 사항은 작가효과의 추정은 본 자료에서 작품매매가 2회 이상인 화가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화가의 작품은 다른 조건이 동등할 경우 다른 화가의 작품에 비해 프리미엄만큼 더 비싼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표 1>에서 나타난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이전의 김환기, 박고석, 유영국, 박수근, 장욱진, 오지호, 권옥연의 순서와 대비된다.

2. 작가의 미술활동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가?

<표 4>의 패널 (1)의 기본 모형에 추가하여 그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작가의 작품 활동 혹은 미술 활동으로 분류되는 국내전시(DOMEX), 해외전시(FOREX), 국내수상회수(DOMPRIZE) 및 해외수상회수(FORPRIZE)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이며 또한 화랑가 및 옥션회사에서도 실제 작품을 매매하거나 경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정보이다. 실제로 작품을 경매하기 이전이나 혹은 이후 국내·외 옥션 회사의 경매 안내 책자 혹은 홈페이지에는 작품에 대한 정보는 상세히 제공하고 있으나 작가의 미술활동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화랑이나 옥션회사가 이러한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그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이름이며, 작가의 이름이 이러한 미술활동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작품 활동 내역은 소비자가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두번째 요인, 즉, 작가의 구체적인 미술활동이 그림가격 결정에 중요하지 않다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표 4>의 패널 (1)의 기본 모형, 즉 식 (3)에 작가의 미술활동을 변수로 고려한 다음의 모형을 고려하였다.

$$y_i = W_i\beta_1 + Z_i\beta_2 + f(S_i) + V_i\gamma + \epsilon_i \tag{4}$$

여기서 V_i 는 국내외 전시회수 및 국내외 수상회수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gamma = (\gamma_1, \gamma_2, \gamma_3, \gamma_4)'$ 이다.

<표 4>의 패널 (2)는 식 (4)의 추정결과⁹⁾를 보여주고 있다. <표 4>의 패널 (2)

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 결과에서 우선 화가의 전시활동 및 수상활동이 그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특히 수상 활동에 비해 전시활동은 유의적이지 않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수상활동, 특히 국내 수상 경력은 그림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외국에서의 수상경력도 다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활동 및 수상활동 등의 작가의 미술활동의 이러한 개별적인 효과 이외에 국내의 전시활동 및 수상활동이 총체적으로 그림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귀무가설, $H_0: \gamma = 0$ 의 가설을 우도비검정방법(likelihood ratio test)을 통하여 검정한 결과 우도비검정 통계량의 값이 0.24로 나타났으며 이는 5% 혹은 10%의 유의수준에서 기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작가의 미술 활동은 총체적으로는 그림 가격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3. 한국화의 가격결정 요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한국화의 매매 건수가 38건에 치우쳐 한국화의 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는 낮은 자유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유의성이 서양화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화의 경우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모형을 구축하기 보다는 <표 4>의 패널 (1)의 서양화에서 구한 모형을 기반으로 추정결과를 구하였다. <표 4>의 패널 (3)은 한국화에 대하여 자연로그로 표시한 그림 가격을 서양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작품의 특성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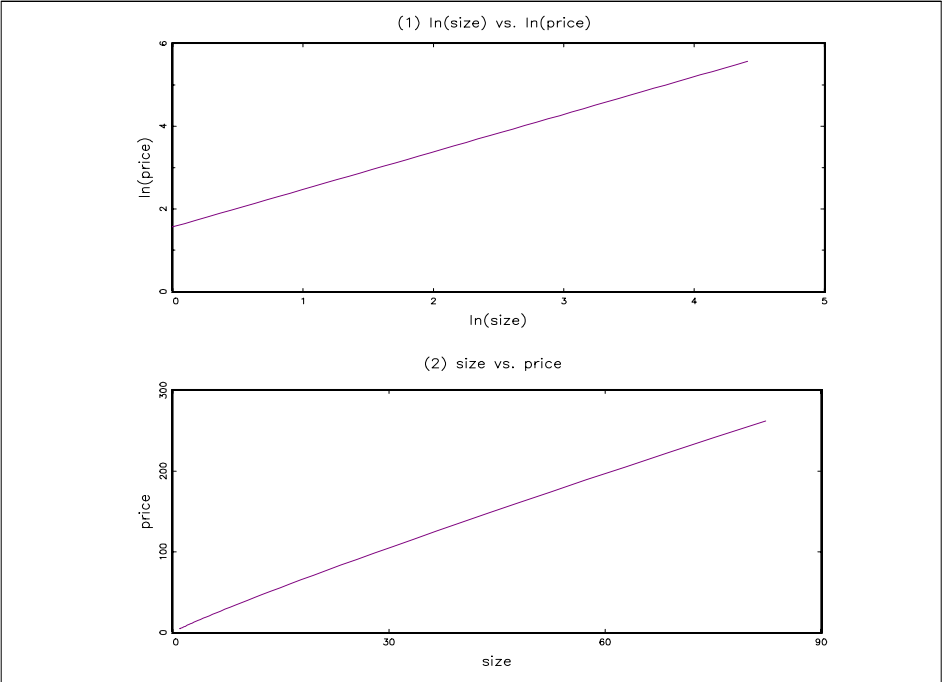
<표 4>의 패널 (3)의 결과에서 한국화의 경우에는 서양화의 경우와는 달리 작가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나 작품의 여러 다른 특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지 못하였으나 '호'수로 측정한 그림의 크기 혹은 넓이로 측정한 그림의 크기 변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화의 경우 서양화에서와는 달리 다른 요인보다 그림의 크기가 그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그림의 크기를 나타내는 변수를 중심으로 비선형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 자연 로그로 나타낸 그림의 크기에 대해 선형인 관계를 채택하였다.

9) <표 4>의 패널 (2)에서는 추정된 작가의 효과 부분은 패널 (1)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으며 또한 후술하는 가설검정에서 식 (2)의 모형을 채택하지 않게 되어 따로 수록하지 않고 있다.

이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3>에서는 그림의 크기와 그림 가격간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 3>의 패널 (1)에서는 로그(호수)-로그(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패널 (2)에서는 이를 호수와 가격간의 관계를 도시하고 있다. <그림 3>의 패널 (2)의 결과에서 한국화의 경우 호수와 크기간에 거의 완벽한 선형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국화의 경우 서양화에서 보다도 호당가격제가 더 확고히 성립한다는 사실이다.

<그림 3> 그림의 크기(호수)에 대한 그림 가격의 함수 형태(한국화)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1998년 12월-2001년 12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옥션에서 낙찰된 미술품(그림) 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미술품 가격 결정 요인을 특성가격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미술품 시장에서 호당가격제가 성립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작가별 효과(프리미엄)를 추정하며, 작가들의 전시회 및 수상 등의 작품활동이 작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림 가격을 그림의 크기에 대해 추정한 결과 서양화의 경우 다른 조건이 동등할 경우 사망한 작가의 그림이 생존 작가에 비해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며, 작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림 가격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작품에 사용된 도구 또한 그림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동일한 조건하에서 아크릴화가 가장 가격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유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림의 바탕 재료로 사용되는 캔버스나 종이 등은 그림 가격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호당가격제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정한 결과 서양화 부문에서는 그림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그림 가격 또한 증가하나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즉, 호당 가격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호당가격제가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화의 경우에는 서양화와는 달리 그림의 크기를 제외한 작가 및 그림의 여러 요인들이 가격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림의 호수와 가격 간에는 거의 완벽한 선형관계를 이루어 한국화의 경우에는 서양화와는 달리 다른 요인보다는 그림의 크기가 중요한 요인이며 호당가격제가 서양화에서보다 더 확고히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작가의 효과(작가의 프리미엄)를 추정한 결과 표본 기간 동안 작가의 프리미엄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작가로는 김홍수 화가이며 다음으로 천경자, 장욱진, 박수근 화가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의 전시활동 및 수상활동이 그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이들 작가의 국내외 미술활동은 그림 가격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 고 문 헌

1. 최윤석, “미술품 경매, 7년의 궤적,” 『Auction House』, 1, 서울옥션, 2006, pp. 36-40.
2. Agnello, R. and R. Pierce, “Financial Returns, Price Determinants, and Genre Effects in

- American Art Investmen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 1996, pp. 359-383.
3. Buelens, N. and V. Ginsburgh, "Revisiting Baumol's 'Unnatural Value: Or Art as a Floating Crap Game,'" *European Economic Review*, 37, 1993, pp. 1351-1371.
 4. Chanel, O., "Is Art Market Behavior Predictable?," *European Economic Review*, 39, 1995, pp. 519-527.
 5. Chanel, O., L. Gerard-Varet and V. Ginsburgh, "The Relevance of Hedonic Price Indic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 1996, pp. 1-24.
 6. Court, A., "Hedonic Price Indexes with Automobile Examples," in *The Dynamics of Automobile Demand*, New York: the General Motors Corporation, 1939, pp. 99-117.
 7. Renneboog, L. and T. Van Houtte, "The Monetary Appreciation of Paintings: From Realism to Magrit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6, 2002, pp. 331-357.
 8. Worthington, A. and H. Higgs, "A Note on Financial Risk, Return and Asset Pricing in Australi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0, 2006, pp. 73-84.

Price Determinants of Art Price: Is it Proportional to Size?

Joon W. Nahm^{*}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price of painting. The attributes included in the hedonic regression model include the name, age and living status of the artist, the number of works sold, the size, medium and material of painting and artistic activities of the artist. The results indicate the price of paintings is proportional to the size of paintings for western style painting while artistic activities are not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icing of painting. This study also estimates the artist effect in the pricing of painting.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e size of painting is key determinant in oriental paintings.

Key Words: unit pricing, hedonic pricing model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ogang University